

## 아프리카 대륙의 식민 역사 : 프랑스부터 중국까지

김태형  
호원대학교 교양학부

### On the Colonial History of African Continent : From France to China

Tae-Hyung Kim

Division of Liberal Arts, Howon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은 아프리카 대륙의 식민 역사에 대한 소고이다. 아프리카 대륙은 고대 그리스와 고대 이집트 시기부터 ‘인류의 고향’ 혹은 ‘따뜻한 지역’ 등으로 불리던 인류의 발원지였다. 하지만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서양 국가들은 15세기부터 아프리카 대륙 곳곳을 유린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긴장한 남성들을 노예로 잡아갔으며 주요 자원들을 빼앗아갔다. 이러한 불행의 역사는 20세기 중반,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자결주의를 내세운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제무대에서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들은 독립하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가난하고 힘없는 대륙일 뿐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21세기 들어서면서 아프리카의 위상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아프리카 대륙을 가난한 지역으로 인식하지 않고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새로운 시장이라고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인식 변화에 주목하면서 전통적으로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열강들의 전통적 식민 지배 역사를 살펴보는 것을 시작으로 최근 새로운 시장으로 인식하며 아프리카의 환심을 사고 자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는 중국의 새로운 형태의 접근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등장한 아프리카 대륙의 현실을 보다 냉철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is on the colonial history of the African continent. It was the origin of mankind, which was called "Hometown of humanity" or "Warm region" since ancient Greece and ancient Egypt. However, the place came to be the invasion target of Western powers. Western nations, based on strong military and economic power, slaughtered sturdy African men and stripped off major resources for their own interests, devastating many parts of the African continent since the 15th century. This unfortunate history seems to have met a happy ending in the mid-twentieth century, after the independence of many African nations that have been committed to national self-determination since World War II. However, African countries have not been recognized as equal partners in the international arena. They were only poor and powerless countries that could be maintained only through the aid of advanced nations like France, as before. Of course, in the 21st century, Africa has begun to be thought to be a new market with high potentiality for development. Various countries, including India, China, Russia and Brazil, as well as major European countries, which have traditionally maintained friendly relations with France, are making efforts to increase their influence in Africa. Therefore, to understand this new trend, it is necessary to give a top priority to grasp the colonial history surrounding African continent.

**Keywords** : African continent, Colonial history, Independence of Africa, International interest in Africa, Western great powers

---

\*Corresponding Author : Tae-Hyung Kim(Howon Univ.)

Tel: +82-10-6779-2200 email: news114@howon.ac.kr

Received November 19, 2018

Revised (1st November 23, 2018, 2nd November 27, 2018, 3rd December 3, 2018)

Accepted December 7, 2018

Published December 31, 2018

## 1. 서론

현생 인류의 발원을 이야기할 때 아프리카 대륙은 DNA 염기 서열의 변화로 유추한 인류의 이동 경로 제일 위쪽에 놓인다. 이것은 4-6 차례의 빙하기와 간빙기가 일어난 시기, 인류는 진화를 거듭했으며 아프리카를 벗어나 점차 넓은 그리고 더 먼 곳으로 옮겨갔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아프리카 기원설’은 인간이 지역적으로 나뉘면서 분리된 인구나 교배하면서 진화했다는 ‘다지역 발생설’을 뒤로하고 과학자들의 가장 지배적인 견해이다.

아프리카(Africa)의 어원 또한 과학자들의 의견을 뒷받침한다. 다양한 유럽 언어의 기원에 해당하는 고대 그리스의 희랍어에는 ‘추위가 없는’이라는 뜻의 <aphrike>라는 단어가 존재한다. 이 말은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오가면서 활동한 아랍의 외교관이자 작가 탐험가로 알려진 레오 아프리카누스(1489~1554)가 제시한 것으로, 그리스어 <phrike(Φρικη, ‘추위’, ‘공포’)>에 결성어 접두사 "a-"를 붙여 추위와 공포가 없는 따뜻한 땅을 가리킨다. 희랍어에서 파생된 라틴어 낱말에도 ‘햇볕 쬐는’이라는 의미로 번역 가능한 <aprica>가 언급되어 있다. 이집트어에서는 아프리카를 보다 근원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카가 열리는 쪽으로 바꾸는’이라는 의미의 <af-ru-i-ka>라는 단어가 있다. 이집트에서 카(ka)는 사람 각자에 있는 정기로써, ‘카가 열린다’는 것은 여성의 자궁이나 여성의 자궁을 통한 출생을 의미한다. 즉 이집트어로 보면 아프리카란 인류가 태어난 ‘고향’이란 뜻이 된다.

그렇다면 이처럼 인류의 기원을 논함에 있어 어김없이 등장하는 아프리카 대륙은 그 지위에 걸맞게 인류의 고향으로 존경받아 왔는가? 불행히도 아프리카 대륙은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수탈 대상으로 전락했다. 특히, 15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서구 열강들의 노예무역과 자원약탈의 주요 무대가 되었다. 그들의 식민지 정책이 지속되면서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은 식민지화 되었으며 20세기 중반에 끝난 제2차 세계대전 직후까지 그들의 자유는 서구 열강들과의 종속적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본 논문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서구 열강들의 아프리카 대륙 침탈과 그 과정에서 행해진 주요 식민 정책들을 살펴보는 것을 시작으로 이러한 전통적 종속관계가 급변하기 시작한 20세기 초반의 국제 상황을 주목하고자 한

다. 또한 이 상황 변화가 야기한 아프리카 대륙의 현황과 21세기 새로운 아프리카 건설을 위한 새로운 협력 관계도 논해보고자 한다.

## 2. 본론

### 2.1 서양 열강의 아프리카 식민 정책

15세기 말은 세계 역사의 전환점이 된 시기이다. 유럽인들은 점차 발달된 항해술을 바탕으로 아시아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데 몰두했다. 그리고 우연히 대서양을 건너 새로운 대륙인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된다. 콜럼버스 Christopher Columbus로부터 시작된 유럽의 식민주의는 1520~30년대에 현재의 중남미 지역을 정복한 스페인으로 인해 본 궤도에 오른다. 1543년에는 자크 카르티에 Jacques Cartier가 이끄는 프랑스 탐험대가 캐나다 동부 가스페 반도에 상륙한다. 프랑스 어선들과 보트들은 뉴펀들랜드 섬을 지나 그랜드뱅크스를 오가며 이 새로운 땅에 관심을 가진다. 이들은 프랑스 식민지 확장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한다. 영국의 경우는 위그노 전쟁과 같은 내부적 문제들로 프랑스가 해외 식민지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틈을 이용해 신대륙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

17세기를 기점으로 서구 열강들이 눈독을 들인 곳은 아프리카 지역이었다. 신항로 개척 이후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아프리카 해안 지대를 중심으로 금, 상아 등의 자원 약탈 등이 행해졌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무역 대상 품목은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었다. 아프리카 노예무역은 그 어떤 자원들과 비교해 많은 이윤이 남았기 때문에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그리고 포르투갈 등 거의 모든 서양 열강들이 눈독들인 무역 사업 중 하나였다. 16~18세기 유럽 상업자본주의의 확장과 더불어 나타난 이들 국가의 노예 상인들은 19세기 이후 산업자본주의 확장과 더불어 최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따라서 17세기까지는 아프리카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자원 수탈과 노예무역이 성행했다면,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아프리카 내륙으로 확장되어 더 많은 노예들이 강제적으로 서구 열강에 잡혀왔다. 주요 서양 열강들의 아프리카 침탈 과정을 살펴보자.

### 2.1.1 스페인, 포르투갈

아프리카 대륙에서 식민지 제국을 가장 먼저 건설한 유럽 열강은 포르투갈이었다. 유럽 내에서 포르투갈 자체가 빈곤하고 주로 농업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포르투갈은 적도기니를 시작으로 앙골라와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식민지로 삼았다. 스페인의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은 그들의 주 수입원이었던 노예 수급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

16세기 스페인의 노예무역은 사실 아프리카가 아닌 서인도제도와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지역에서 행해졌다. 광산 채굴과 다양한 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농장, 하시엔다(hacienda)[1]를 유지하기 위해 인디언들을 수탈했고 그곳에서 생산되던 물품들이 대서양을 건너 유럽에 전달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남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은 빈약한 영양 상태와 가혹한 노동 그리고 무엇보다 유럽인들이 전염시킨 새로운 질병을 극복해내지 못했고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졌다.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는 스페인이 침탈한 이후 80% 이상 인구가 감소했다.

이 급격한 인구 감소는 하시엔다에 종사할 수 있는 인디언 노예 수 급감을 의미했으며 부족한 농민을 대체해

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는 곧 아프리카 노예무역의 활성화를 부추겼다.

Fig. 1은 이 상황을 보다 자세히 설명해준다. 기존의 아프리카 노예무역은 유럽으로의 유입 위주로 행해져왔다. 약 30만 명의 아프리카 노예들이 유럽으로 유입되었다. 하지만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비롯해 프랑스 영국 등 식민지를 소유한 국가들이 거대한 영토와 비옥한 토질이 많은 서인도제도와 브라질을 필두로 한 아메리카 대륙 곳곳에 유럽에서 비싸게 취급되는 작물인 설탕, 담배, 커피 등의 기호식품과 작물들을 계획 재배하면서 아프리카 노예들은 인구가 감소한 서인도제도와 브라질 사람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이들 지역으로 향하게 된다. Fig. 1.은 브라질 지역의 광산과 커피 생산을 위해 약 500만 명의 노예가 아프리카에서 수급되었으며 서인도제도에서의 자원과 설탕 등의 생산을 위해 450만 명의 노예가 아프리카의 노예 해안(slave coast)으로부터 유입되었음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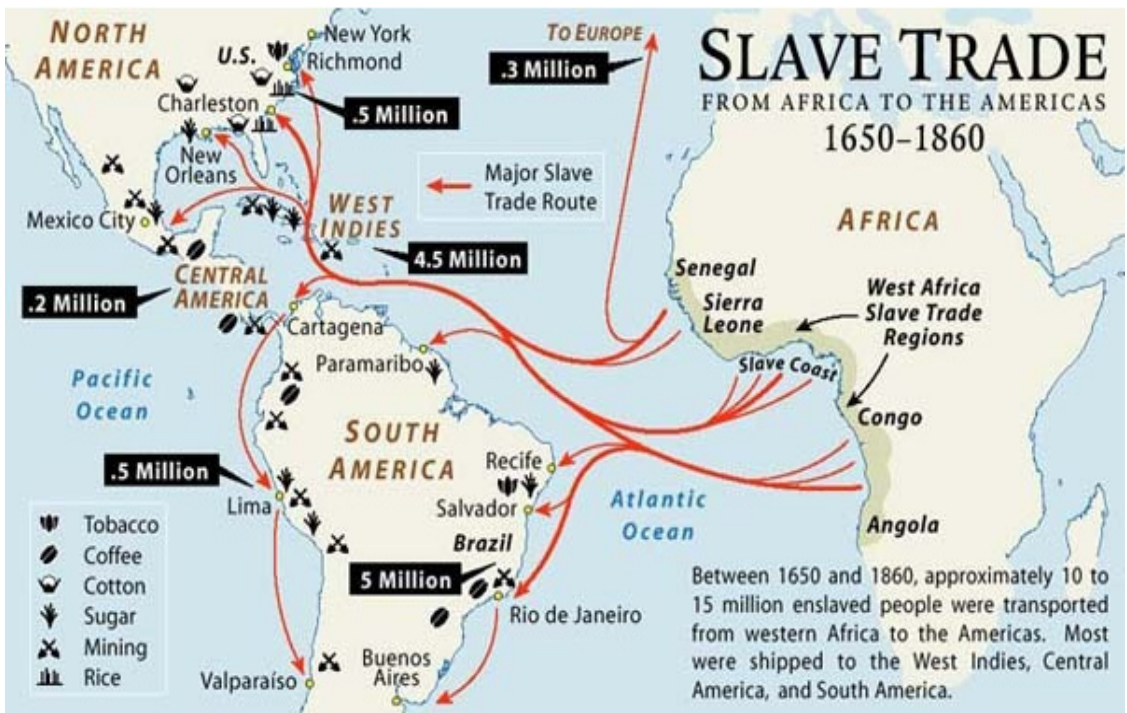


Fig. 1. The route of slavery force and the related industries during 1650 ~ 1860 in Africa

### 2.1.2 영국



Fig. 2. Comparison of British and French colonization strategies in the African continent, <Fashoda Incident>(1898)

영국의 대 아프리카 정책은 Fig. 2의 그림처럼 아프리카 대륙을 상하로 나누는 종단 정책으로 대변된다. 영국은 북아프리카 지역의 이집트를 그들의 아프리카 침탈 본거지로 삼았다. 1875년 이집트를 차지하기 위해 수에즈 운하의 주식을 대거 매입하였고 1882년 이집트에서 발생한 반(反)영 민족운동에 대한 무력 진압을 계기로 이집트를 자신들의 보호국으로 삼았다. 이어 수단을 점령하고 남아프리카 연방을 건설했다.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시작된 이 종단 정책은 1910년 남아공의 케이프타운까지 식민지로 삼으면서 비로소 완성되었다.

### 2.1.3 프랑스

프랑스는 영국의 종단 정책에 맞서 아프리카 대륙을 좌우로 가로지르는 횡단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영국의 종단 정책과 접점지역이라 할 수 있는 이집트 쏘다 지역에서 발생한 영국군과의 일전에서 패전해 밀려난 프랑스는 횡단 정책을 완성하지 못하고 유럽 대륙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알제리를 거점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식민지를 확대했다. 1881년 튀니지를 얻었고 아프리카의 대서양 연안을 따라 가봉, 기니, 코트디부아르 그리고 세네갈 등이 프랑스 식민지가 되었다. 또한, 1896년에는 인도양의 마다가스카르를 획득했다.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프랑스가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영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 아프리카 정책을 펼쳤다는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자원의 수탈과 노동력 유입을 위해 그들을 피지배자 계급으로만 여겼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프랑스 식민정책의 특징은 그들이 아프리카인들을 단순한 지배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이 아니라 프랑스 시민으로 인정했으며 그들을 프랑스 문화권으로 동화시키려 했다. 물론 이러한 행동이 1789년 발생한 프랑스 대혁명의 모토인 ‘자유, 평등, 박애’에 기초한 순수한 조치는 아니었다. 프랑스 대혁명은 프랑스를 시작으로 유럽 사회에 본격적인 자유와 평등의 중요성을 상기시킨 것이 사실이다.[2] 또한 이에 못지않게 ‘톨레랑스 tolerance’로 대변되는 관용 정신 역시 중요한 가치로 치부했으며 이는 핍박받는 이들에 대한 인류애적 감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 아프리카 정책에 있어 이러한 인류애적 감정이 개입되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신 보다 현실적인 이유가 존재했다. 프랑스는 아프리카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그들을 프랑스 시민으로 인정한 것이었던 것이다. 프랑스 정치가들은 자원과 인력 수급 보다는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면서 아프리카를 약탈했던 것이다.

## 2.2 민족자결주의와 아프리카

15세기부터 시작된 서구 열강들의 식민 정책으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아프리카 대륙의 여러 나라들 중 공식적으로나마 독립을 유지하고 있던 나라는 백인 지배하의 남아프리카 연방, 열강들의 완충 역할을 담당할 목적으로 남겨진 에티오피아 그리고 미국의 지원을 받아 독립을 유지하고 있던 라이베리아 세 나라뿐이었다. 노예무역이라는 명목으로 19세기 중엽까지 아프리카를 떠나 세계 각지를 떠돌아야만했던 아프리카 인들은 최소 4000만 명에서 최대 6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같은 대규모 강제 이동은 당연히 아프리카의 노동력 상실을 야기했으며 만성적인 경제발전 둔화의 근본원인이었음을 부정할 순 없다.

하지만 이 종속적 관계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서서히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열강들에 의해 강제 분할되어 식민지로서 수탈을 당해오던 아프리카 대륙의 여러 민족들은 민족주의 운동에 눈뜨기 시작한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자결권을 주장하며 전 세계적으로

민족해방 운동이 발생하자 연합전선을 구축해 보다 적극적인 민족주의 운동을 전개한다. 아프리카의 해방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민중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이 행해졌으며 이 교육의 보급은 리비아, 이집트, 수단, 모로코, 튀니지 등 북 아프리카 지역의 독립에 도화선이 되었다.

나아가 1955년 4월 인도네시아의 반등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와 1957년 12월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아프리카제국민회의 등을 통해 민족해방 운동의 국제적 유대가 형성되었다. 1958년에는 가나에서 아프리카 국민회의가 열렸으며 아프리카 각 국의 대표들은 아프리카의 해방과 통일을 도모하기 위한 항구적 조직인 ‘전아프리카 국민회의’를 설립하였다. 특히, 1960년에는 무려 17개국이 한꺼번에 독립하여 ‘아프리카의 해’로 불리기도 했다. 이처럼 아프리카 대륙은 20세기 들어서면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 2.3 새로운 아프리카

#### 2.3.1 아프리카 국가들의 독립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새로운 아프리카를 위한 첫 번째 시도는 독립이었다. 새로이 탄생한 신생 국가들의 지도자와 정치인들은 국가가 나아가야 할 정확한 노선을 숙지하지 못한 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고 결국 가난과 빈곤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다. 1960년대 아프리카 국가들은 독립을 달성함에 있어 사회주의를 표방했다. 그 후 70년대 마르크스-레닌주의로 대변되는 사회주의 정책은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의 기본 이념으로 성숙하게 된다. 하지만 80년대 사회주의의 취약점, 특히 경제와 관련된 고질적 문제점들이 대두되면서 점점 배척당하게 된다. 아사자들이 널려있는 아프리카 대륙의 주민들은 그동안 고집해오던 자신들의 이데올로기가 경제정책 실패의 주요 원인이었음을 자각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프리카 대다수 국가들의 경제정책은 실패한 것이다.

아프리카 사회주의의 시조로 불리는 탄자니아에서는 주택의 개인소유를 금지해온 법안을 철폐하는 한편 국가 소유의 농장 부지를 개인 기업가에게 양도했으며, 마르크스주의 국가로 자부해온 모잠비크도 새로운 개인투자

Table 1. Official language usage in French[3]

Country where French is the official language	Countries adopting common language		Countries adopting English	Etc
	Country	Co-official language	Country	Country
Benin	Burundi	French / Kithun Deer	Uganda	Libya (Arabic)
Burkina Faso	Cameroon	French / English	Ghana	Sudanese (Arabic)
Central African Republic	Comoros	French / Arabic	Zambia	Egypt (Arabic)
Republic of the Congo	Congo-Zaire	French / English	Kenya	Somalia (Somali)
Ivory Coast	Djibouti	French / Arabic	Gambia	Nimivia (English, German)
Gabon	Madagascar	French / Madagascar	Sierra Leone	Angola (Portuguese)
Guinea	Rwanda	French / English / Rwanda	Swaziland	Cape Verde (Portuguese)
Mali	Seychelles	French / English / Creole	Seychelles	Guinea-Bissau (Portuguese)
Niger	Chad	French / Arabic	Tanzania	Sao Tome and Principe (Portuguese)
Senegal			Botswana	Mozambique (Portuguese)
Togo			Malawi	
			Morshus	
			Liberia	
			Lesotho	
			Zimbabwe	
			Republic of South Africa	

법안을 제정하고 세금을 낮추었으며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수출입통제를 완화하였다. 구(舊)소련에서 일정부분 영향을 받은 이들 사회주의 국가들과 함께 이디오피아, 앙골라, 모잠비크 같은 소련의 동맹국들 역시 무기 이외에는 충분한 자금이나 자원을 공급하지 못함으로써 관계가 소원해졌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 위기로 연결되었으며 수많은 아사자를 양산하게 되었고 아프리카 대륙의 대다수 사회주의 표방 국가들은 독자적인 생존 방안을 강구해야만 했다. 이들 국가는 소련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자유주의 진영의 사고방식과 경제적 성공, 번영의 열매가 자신들의 국가적 문제점인 경제적 취약점을 보완해주길 희망했다.

이처럼 아프리카 내부에서 발생한 변화의 흐름은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싹트기 시작했으며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선택한 국가들은 물론 사회주의 노선을 선택했던 10여개의 아프리카 국가들 역시 소위 「발전 없는 성장」이라고 폄하해오던 자본주의를 그들의 새로운 이상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들의 내부 정책이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된 것이다. 그 후 자본주의는 본격적으로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 20세기 초반부터 대(對)아프리카 대륙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던 프랑스는 물론, 21세기 새로운 경제대국으로 떠오른 중국도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당근’을 줄 협력 파트너로 떠오르

게 된다.

### 2.3.2 프랑스의 대(代)아프리카 정책

제국주의가 붕괴한 이후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지배력을 가장 많이 유지하고 있던 국가는 프랑스였다. 이러한 상황은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유를 쟁취한 이후 선택한 그들의 언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4] Table 1은 아프리카에서 프랑스어를 비롯해 사용되는 다양한 언어들에 대한 공식적 사용 현황이다.

아프리카는 흔히 ‘프랑스어권’, ‘영어권’, ‘포르투갈어권’ 그리고 기타 ‘아랍어’를 사용하는 국가들로 나뉜다.[5]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Table 1의 표처럼 서양의 언어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서구 열강들의 아프리카 침탈 과정에서 오로지 열강들의 편의주의를 위해 자신들의 언어를 강제한 것이다. 즉, 서구 열강들이 아프리카에 행한 강제적 언어 침탈의 결과인 것이다. Fig. 3에서 알 수 있듯 아프리카 대륙에서 사용되었던 언어는 유럽 열강들이 차지했던 지역과 대부분 일치하며, 현재에도 그러한 경향은 유지된다. 17세기 이후 식민지 확장 정책을 펴면서 서구 열강들은 피침탈 지역의 사정을 일체 고려하지 않았다. 이집트를 시작으로 남쪽의 남아프리카까지 연결하는 종단 정책을 추진했던



Fig. 3. Colonial languages of Africa[7]

영국도, 알제리를 시작으로 아프리카를 가로지르는 횡단 정책을 추진했던 프랑스도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아프리카를 이용했던 것이다.

그들은 철저한 동화주의 정책을 썼으며 정책에 의해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영어나 불어를 배워야만 했으며 관공서나 공식 문서는 모두 해당 언어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아프리카의 토착 언어들은 그 사용 비중이 감소하게 되었으며 영어나 불어 등 서구 열강의 언어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6] 물론 그들이 아무런 저항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프랑스의 동화주의 정책에 따라 불어를 의무적으로 배워야했던 많은 국가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의 존재를 각인시키는데 그 무엇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무기는 불어였다.

그들은 네그리튀드 운동 Negritude에서 보듯 불어로 쓴 문학 작품을 통해 그들이 주장하는 아프리카 정신을 세계에 알렸고 독립을 위한 저항 운동과 해방의 당위성 주장 역시 프랑스어를 통해 이루어졌다. 지배자의 언어, 침략자의 언어였던 프랑스어가 그들 고유의 문화와 삶 그리고 사상과 예술을 세계에 알리는데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래서인지 불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하는 그래서 오히려 스스로 ‘프랑스어권 francophone’에 편입하려는 나라들도 생겨났다. 19세기부터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등 북아프리카 국가들에서 프랑스를 사용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어를 공용어도 인정하지 않고 프랑스어권에 들어오기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중서부 아프리카 불어권 국가들은 이와 반대되는 행보를 보여주곤 했다. 이들 국가들은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족에 따라 많게는 1000여개가 넘는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 중앙행정, 공교육, 통신 등 국가 기반 시설과 행정 시설에서는 프랑스어가 공식적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부족 개념이 강한 사회이다 보니 일상생활에서는 토착어나 지방의 소수 언어가 사용된다.[8] 이러한 양층언어 diglossie (사회언어학자 피거슨이 제안한 용어로,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에서 한 언어는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는 ‘상위어’로, 다른 한 언어는 일상생활 등의 비공식적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는 ‘하위어’로 구분되어 사용되는 상황을 말하는 사회학적 용어) 상황은 이미 일반화된 경향을 보여주기도 한다.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의 방송, 법, 정

부 공식 담화들이 거의 대부분 프랑스어로 작성되는 반면 아프리카인들의 5~10%만이 프랑스어를 사용한다고 추산된다.[9]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들은 북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에 비해 프랑스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인구의 수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프랑코폰 국가에 편입되길 희망했다. 이유는 분명해 보였다. 불어를 대체할만한 공식적인 언어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현실적 이유와 국가 발전과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략적 이유가 작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국가들은 프랑스어를 국가의 단일 혹은 공동 공식어로 지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바람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독립하기 시작한 가난한 아프리카 신생 국가들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유럽연합과 EU-ACP 협력체의 중심 국가, ODA(공적개발원조)의 주요 수여 국가 등 프랑스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 특히 프랑스가 보여준 아프리카에 대한 태도는 다른 식민 국가였던 영국, 포르투갈과 비교해 매우 진취적인 것이었다. 프랑스는 다른 식민종주 국가들과 달리, 1957년부터 야운 데협정을 통해 자신들이 식민 통치했던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단순한 차원의 교류를 넘어서 유럽공동체 전체와의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현재에도 그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프랑스를 이끈 레지스탕스의 수장, 샤를 드 골 대통령은 당시만 해도 일반 국민들이 당연히 프랑스의 한 주에 불과하다고 여겼던 알제리를 해방시키는 일을 실행했음은 물론 1967년 구상된 프랑코폰 정상회담을 만들어 그 결속 유지에 힘썼다. 또한 프랑스-아프리카 정상회담을 30년 넘게 유지하면서 프랑스와 아프리카는 식민지배라는 뼈아픈 과거사를 청산하고 상호 긍정적인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해왔으며 미테랑 대통령 집권기에도 마찬가지였다. [10] 하지만 200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우익 정당인 공화국연합 (Rassemblement pour la République) 소속으로 당선된 니콜라 사르코지 (Nicolas Sarkozy) 대통령은 프랑스와 아프리카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었다. 그는 대통령 후보 연설에서도 아프리카 정책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기존 대통령들의 ‘프랑스-아프리카(Françafrique)’ 정책을 그대로 지속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당시 그를 비롯한 우익 세력들은 프랑스가 아프리카에 ‘피주기식’ 지원을 하고

있다고 여겼으며, 이러한 정책이 프랑스 자국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대신 그는 손해 보는 경제협력을 최대한 피하는 현실주의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이상적 대안을 제시했던 바 있다.

하지만 그가 아프리카와의 관계 정책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없었다. 우선, 경제적인 이유에서였다. 미국에서 발생했던 9.11 테러를 시작으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민주화 운동이 발생하면서 프랑스의 원유 수급에 문제가 발생했다. 에너지 정책 분야에 있어 자급보다는 대외 의존적 성향이 높았던 상황이었기에 이러한 글로벌적 대외 변수는 그동안 지속적이며 안정된 원유 공급원이었던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킨 계기가 되었다. 또한, 도덕적 문제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기점으로 ‘자유, 평등, 박애’를 주창하던 프랑스의 발목을 잡았다. 1994년 르완다에서 일어난 종족 학살을 ‘제노사이드 genocide’(인종을 나타내는 그리스어 ‘genos’와 살인을 나타내는 ‘cide’를 합친 것으로 ‘집단학살’을 뜻한다. 이는 특정 집단을 절멸시킬 목적으로 그 구성원을 대량 학살하는 행위로, 보통 종교나 인종·이념 등의 대립으로 발생한다. 1944년 법률학자인 라파엘 렌킨(Rafael Lemkin)이 국제법에서 집단 학살을 범죄 행위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처음 사용한 용어)[11]로 규정하지 못한 데에 안보리 이사국 중 하나인 프랑스의 방관 혹은 책임 회피에 대해 불만을 가진 불어권 아프리카 국가들이 증가했던 것이다. 이 사건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탈프랑스적 나아가 탈유럽화의 정치외교적 경향을 지니게 된 계기가 된다. 아프리카의 중추국을 자처하던 프랑스의 위상은 점차 약화되었으며 그동안 쌓아왔던 아프리카와의 우호적 관계는 균열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심각성을 인식한 사르코지 정부는 2008년 새로운 석유 자원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앙골라와 콩고민주공화국을 순차로 방문하면서 ‘피주기식’ 혹은 손해 보는 경제협력을 지양하고 보다 현실주의적인 정책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자신의 프랑스-아프리카 정책 공약을 수정하면서 위기를 탈출하고자 했다. 그 후 프랑스의 대아프리카 정책은 자위안보와 경제적 이해관계 그리고 외교적 영향력 확보를 위한 다방면적인 접근으로 선회하게 된다.

### 2.3.3 신 식민지 건설 : 중국의 개입

프랑스를 위시로 한 유럽 국가들과 미국이 보여주던

기존의 대 아프리카 정책은 새로운 경쟁 국가인 중국의 등장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20세기 아프리카는 ‘위기의 대륙’으로 불리며 세계무대에서 협력 파트너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갖지 못했으나, 21세기 접어들면서 아프리카의 잠재적 가치가 부각되면서 새로운 ‘기회의 시장’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를 둘러싼 쟁탈전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자국의 경제 성장과 높은 외화 보유를 앞세운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의 국가들이 아프리카 진출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그 중에서 주목할 국가는 중국이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에서 중국의 발 빠른 행보를 21세기 ‘신식민지’ 건설이라 주장하며 견제하고 있지만, 중국은 그동안 유럽이나 미국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아프리카를 대하고 있다. 그동안 아프리카의 경제 투자 면에서 독보적 우위를 자랑하던 유럽 국가들은 그들에게 차관을 제공함에 있어 항상 서방의 조건이나 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강제해왔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권 예산 정책 역시 서방 세계와 큰 뜻을 공유한다. 미국은 2019년 예산 초안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미국의 의료 지원액을 최소 20% 감축하고 아프리카에 대한 외교 프로그램의 30% 이상 감소시켜 줄 것을 의회 예산결의 위원회에 요청한 상태이다. 인종차별적이고 미국 중심적인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본인의 성향이 반영된 이 요청은 그동안 아프리카 원조의 중심에 있던 유럽과 미국, 양대 산맥의 붕괴를 가져왔으며 그 틈을 파고든 것은 고도의 경제 성장으로 이제 내수 위주의 경제성장을 벗어나 세계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된 중국이었다.

반면, Fig 5가 보여주듯, 중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는 날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의 대 아프리카 무역은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다 2016년과 2017년 약간의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 그 큰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차관 제공은 점차 커져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유럽이나 미국처럼 요구 조건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중국의 신경제구상 ‘일대일로’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중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이것을 가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경제적 지원임을 알고 있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Fig. 5는 중국의 대 아프리카 원조가 한쪽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두루 퍼져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정부가 공식 발표한 「해외원조 백서」에 따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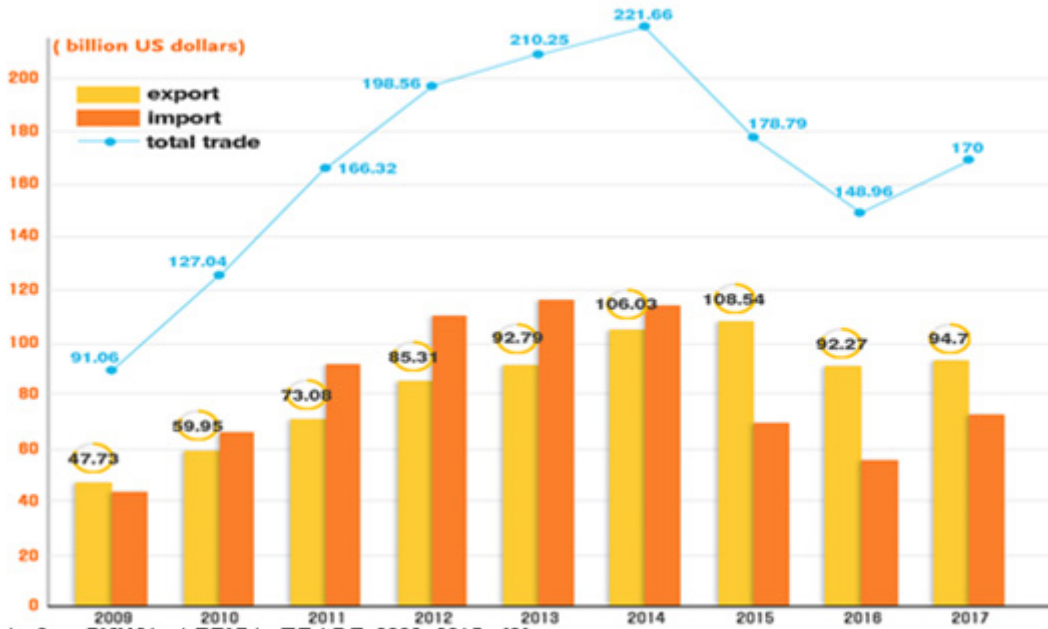


Fig. 5. China-Africa Trade 2009-2017[12]

2009년부터 중국은 전체 해외원조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아프리카에 배정하고 있다.

공적개발 원조(ODA)는 초기 농업개발과 같은 소규모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되었으나 1990년대부터 원조액이 늘어나면서 공항, 항만, 도로, 철도, 발전소 등 대형 인프라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제 지원을 시작으로 정치, 군사, 자원, 문화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다. 그로인해 최근 10년 간 중국은 미국과 몇몇 유럽 국가들을 대신해 아프리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되었다.[14]

중국이 아프리카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자신들의 물건을 팔 새로운 시장 개척을 목적으로만 하지 않는다. 아프리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에게 매력적인 땅이다. 예를 들어, 중국이 필요로 하던 원자재를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원자재 공급 국가가 아프리카이다. 중국의 대 아프리카 원유수입 비중은 1995년 11%에서 2010년 23%로 두 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2025년경에는 4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뿐 아니라 코발트, 망간, 크롬, 구리, 목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능숙한 행보로 점차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아프리카 국가들

을 순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2018년 9월 3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수도인 베이징에 아프리카 53개 국가 정상들을 초청해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정상회의(CACFP)’를 개최하면서 ‘중국이 아프리카에 지원하는 자금은 헛된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닌, 발전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기반시설을 확립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듯 ‘중국은 아프리카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고, 아프리카에 중국의 뜻을 강요하지도 않는다’면서 ‘중국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발전의 경험을 아프리카와 공유해 아프리카의 회복과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시진핑 주석의 말을 무조건 신뢰할 순 없지만 아프리카에서의 중국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 3. 결론

아프리카 대륙은 15세기부터 서양 열강들의 침략을 받았다.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의 열강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노예와 자원 조달을 위해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을 무차별적으로 침략했던 것이다.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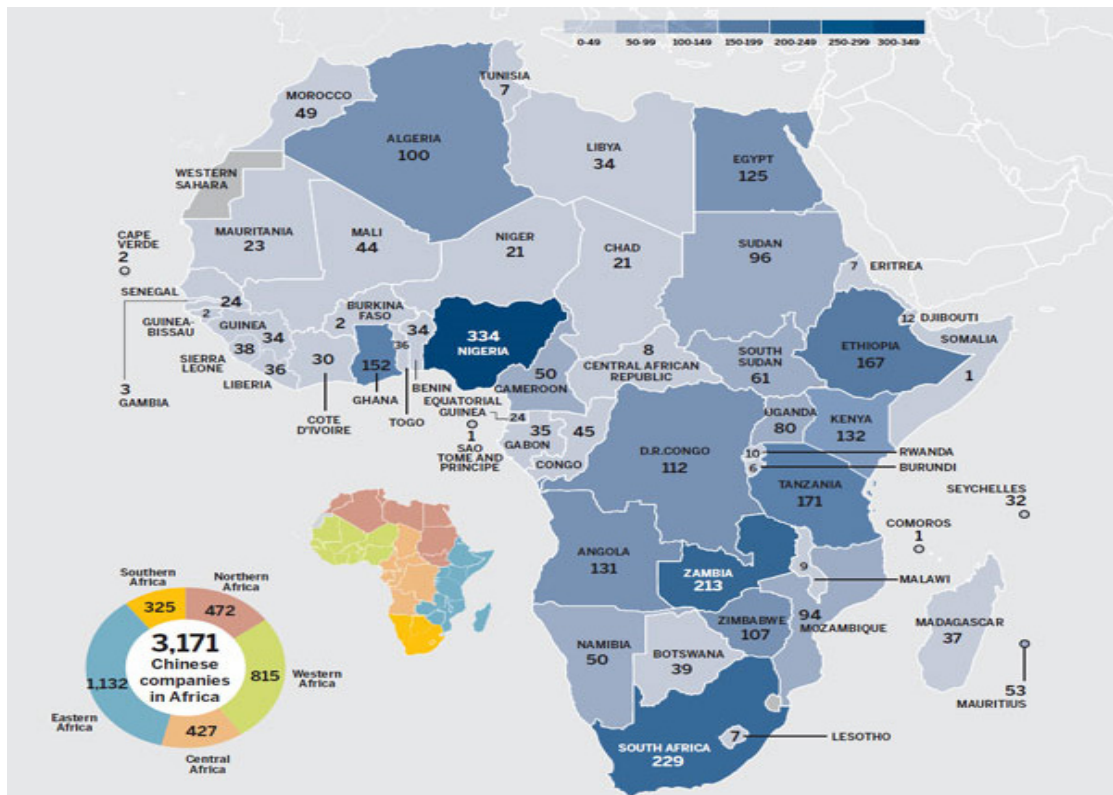


Fig. 6. Chinese investment in Africa[13]

이렇게 시작된 침탈의 역사는 20세기 중반까지 이어져 왔으며 아프리카는 자생할 힘을 가져본 적이 없다. 서양 열강들은 아프리카의 미래에 별다른 관심을 지니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프리카 대륙의 대다수 국가들은 20세기까지 그 가능성을 인정받지 못한 해결해야할 문제만 가득한 커다란 대륙에 불과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와 아프리카 대륙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미지의 땅이자 매력적인 투자 가치가 있는 곳으로 인식되었다. 아프리카에 대한 전통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서양의 여러 나라들은 물론 신흥 세력으로 등장한 인도, 브라질, 중국 등의 나라들 역시 아프리카와의 발전적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암울했던 식민 역사를 벗어난 새로운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후속 과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 아프리카 정책의 현실과 새로운 대안 제시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 [1] Ko Young-bok, Sociology dictionary, p. 548, Sociology and Culture Institute, 2010.
- [2] Hunt, Lynn, The Family Romance of the French Revolution, pp. 36-58,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2.
- [3] Choi Eun Soon, French-speaking Black African region and French, *French Studies in French Literature* 56, p. 1021, 2016.
- [4] Greenberg, J., The languages of Africa, pp. 16-78,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Mouton & Co., The Hague, 1963.
- [5] Alexandre Pierre, An Introduction to Languages and Language in Africa, p. 77, Translated by F.A. LEARY, Heinemann, 1972.
- [6] Bamgbose, A., Language and the Nation: The Language Question in Sub-Saharan Africa, p. 158,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91.
- [7] E.G.Matthews, Language services, Government College, Bida, Niger State of Nigeria, 1995, <http://www.angelfire.com/mac/egmatthews/worldinfo/afri-ca/languages.html>, (accessed Nov., 10, 2018)
- [8] Han Yang Hwan, French Development in Africa, pp.

220-224, Hanul, 2009.

- [9] Jean-Louis Calvert, Kim Byung-wook, Language and colonialism, pp. 292-293, Euro book, 2004.
- [10] Kim Myung-seop, The Cultural Diplomacy of Mitterand's France(1981-1995), p. 47, Korean Political Science Bulletin, 2003.
- [11] PMG, Current affairs dictionary, p. 156, ParkMoongeak, 2017.
- [12] Li Yan, China - Africa trade (2009-2017), Globaltimes.cn, 2018, <http://www.ecns.cn/hd/2018-09-03/detail-ifyxpqun1872440.shtml>, (accessed Nov., 10, 2018)
- [13] China Daily, Chinese investment in Africa, China Daily Africa, 2015, [http://africa.chinadaily.com.cn/weekly/2015-11/27/content\\_22522846.htm](http://africa.chinadaily.com.cn/weekly/2015-11/27/content_22522846.htm), (accessed Nov., 10, 2018)
- [14] Afro Barometer. African Perspectives on China-Africa: Gauging Popular Perceptions and Their Economic and Political Determinants., p. 117, Working Paper, 2010.

---

김 태 형(Tae-hyung Kim)

[정회원]



- 1984년 2월 : 전북대학교 불어불문학과 (불문학학사)
- 1987년 2월 : 전북대학교 불어불문학과 (불문학석사)
- 1994년 9월 : 프랑스 툴루즈 미라이대학 (불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호원대학교 교양과 교수

<관심분야>

프랑스문학, 유럽문화, 대중문화, 영화